

제37회 한일기술사 합동심포지엄 인사말



이 정 만 회장

제37회 한일기술사 합동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하여 먼 길을 오신 일본기술사회 타카하시 오사무(高橋 修) 회장님을 비롯한 기술사 여러분들과 동반하신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한국 기술사와 함께한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해 우의증진과 기술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양국의 기술사교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일본 여성기술사 10여명과 한국 여성기술사 20여명이 참석하여 청년기술사들의 참여와 더불어 금번 심포지엄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시는 옛 백제 도읍 500여년, 조선왕조 도읍 500여년의 역사가 숨 쉬는 땅입니다.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많은 유적유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초고층빌딩, IT산업단지, 깔깔한 지하철 등 최첨단을 달리는 도심 한복판에 경복궁, 덕수궁, 숭례문 등 고즈넉한 역사의 무게를 지닌 현대와 전통이 함께 숨 쉬는 도시입니다.

이 호텔은 백제의 몽촌토성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는 공원 안에 자리한 곳으로 주변경관이 아름답습니다.

한일 기술사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혼쾌한 마음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 주시고 아울러 서울시의 매력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일본기술사회 이와쿠마 마끼(岩熊 眞起) 부회장과 한국기술사회 이효숙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양국의 여성기술사 30여명이 공통 관심사에 대한 별도 논의를 하는 등 한일 여성기술사 활동에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한 3회째 접어들고 있는 한일 청년기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친선 축구경기는 심포지엄 앞날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일 기술사 여러분!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동북아 인류평화를 위한 환경기술에 관한 연구』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큰 수해와 가뭄으로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는 등 날로 그 피해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선 전 세계적 문제이자 지구차원의 과제입니다.

이번 『동북아 인류평화를 위한 환경기술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 기술사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찰과 연구개발을 하고 정확한 예보와 대응으로 자연재해 및 인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양국의 기술사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 응용능력을 지닌 각 분야 최고의 전문자격자로서 심포지엄을 통하여 더욱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류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장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일 기술사 및 동반한 가족 여러분!

외곽으로 푸른 산이 병풍을 두르고, 도심 한 가운데는 넉넉한 한강이 흐르는 서울에서의 만남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제37회 한일기술사 합동심포지엄의 모든 일정이 양국 기술사들에게 진일보한 모임으로 승화되길 기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한일 기술사 여러분과 가족들의 돈독한 우의를 다지는 즐거움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심포지엄 준비를 해 온 양국의 기술사회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박경부 한일기술사교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과 나까야마 데루야(中山 輝也) 일한기술사회의실행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참가자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1일

한국기술사회 회장 이 정 만